

경기정원문화박람회 10돌이 지났다. 2010년도 전국 최초로 시도한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연구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과거 1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목적이 있다.

모든 박람회의 기본은 교육이다. 정원박람회는 꽃 전시에서 도시재생으로 발전하고, 고정적인 전시 기능으로도 자체적으로 주제공간으로 발전하고, 과학기술에서 환경으로 변모하고 있다. 구글 이미지를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 중이고, 동양의 다양한 주제들이 약진하고, 한국 작가들의 역량이 발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원박람회는 차별화 속에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 10년을 되돌아본 결과 가장 취약점은 대표 이미지가 없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개막식이 대표 이미지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사 후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것도 보편적인 이슈이다. 작품의 판매 등으로 산업으로 발전을 해야 하는데 이 또한 잘 안 된다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앞으로 10년을 위해 10대 전략을 제안하였다. 경기 정원 보관원, 경기 정원학교, 대표 이미지 설정, 대표 이미지와 함께 주제의 부각, 경기정원지원센터 설립, 공공과 정원 작가 간의 원활한 계약, 보호지역 주변의 마을정원, 보호지역 주변의 야생정원, 경기도 정원가도 그리고 경기도 전원도시이다.

(정책제안 1)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15회까지만 하고 시군으로 이양,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이미지를 갖는 정원박람회를 기획하여 진행한다. 10회에서 15회까지는 보호지역 주변의 마을정원과 야생정원 등 몇 가지 남은 숙제를 해야 할 것이다.

(정책제안 2) 경기도 정원 플랫폼을 만들자. 안산시에 계획되고 있는 (가칭) 경기가든 세계정원을 경기도 정원 문화와 산업의 거점으로 삼자. 시민정원사들의 활동 거점, 작가들의 다양한 경연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행한다.

(정책제안 3) 경기정원지원센터를 설립하자. 정원의 지원뿐 아니라 하는 김에 도시숲 지원도 겸하는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으로는 경기도 산하기관을 만들기 보다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경기도 환경에너지진흥원의 팀으로 시작해보자.

(정책제안 4) 전원도시(garden city)를 지정하자. 10년에 3개 정도의 시군을 목표로 하면 100년 후에는 경기도 전체가 전원도시가 된다. 정원 수목원 식물원 등 원(園)과 원(園)을 연결하는 정원 가도(街道)를 지정하고 나아가 전원도시를 가꾸어 가든 코리아(garden korea)로 가자. 정원가도 전원도시는 한국형 그린 딜(green deal) 핵심이 될 수 있다.

이밖에도 지도나 동영상 제작하고 사진전도 개최하고, 개막식과 폐막식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비대면 시대에 맞게 온라인 박람회도 병행하고, 박람회 개최지는 지방정원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보자.